



이준범

< 한국석유공사 해외조사팀 >

## 신자유주의 국제경제 질서와 국제유가

유가는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이라는 메카니즘을 통해 과거보다 더욱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하겠지만,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과거 보다 더욱 증가하여 유가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급격한 상승세로 진입한 지 이제 거의 2년이 되었다. 20세기 마감을 앞둔 1999년 3월부터 시작된 최근 고유가 현상은 90년대 들어 계속되어오던 저유가의 시대 마감과 고유가 시대의 진입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석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들어 제기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은 지난 3월 에이브라함 스펜서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언급하였듯이 고유가 다음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도래한다는 이제까지의 인식(conventional wisdom)이 틀리지 않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듯 하다. 그런데 최근의 고유가는 90년대 이후의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인 신자유주의 환경 하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적 이해가 필요하다.

### 1. 1999년이후의 유가 변동 특징

최근 유가는 1999년 2월 \$10/bbl (Brent유 기준)이라는 90년대 최저 수준을 통과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작년 9월 7일 \$37.43/bbl을 기록하

였다. 다행히 금년 들어 유가는 \$24-26/bbl대에서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유가 전망은 본 글의 목적이 아니어서 깊게 논의할 수 없지만, 최소한 과거와 같은 \$10/bbl대의 초저유가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현실이다.

유가 변동, 특히 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최근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은 아니지만, 금번의 유가 상승은 과거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1999년 2월 이후의 유가 상승은 세계적인 공급혼란을 야기할 만한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 과거 고유가는 1973년 아랍-이스라엘 분쟁에 의한 1차 석유 위기,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과 이어 발생한 이란-이라크 전쟁, 그리고 1990년 페르시아만 전쟁 등의 경우처럼 군사적 정치적 사건이 석유 공급에 충격을 가하고, 이 충격으로 유가가 급등하였다. 둘째, 이번 유가 상승은 OPEC의 공급조절이 주도한 모습을 보였으나, 국제 금융자본의 투기적 활동 또한 유가 변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가 변동폭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져 가고 있다. 작년 하반기와 금

년 초 일일 유가 변동폭이 \$1/bbl에 달하는 날들이 자주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공급 혼란기 외에는 잘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최근의 유가 급등은 석유 공급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수급상황에서 OPEC과 국제 자본의 역할에 의해 가격이 큰 변동폭을 갖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 2. 신자유주의 국제 경제 질서 속의 석유

세계경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오던 미소냉전이 1990년 붕괴되면서 신자유주의 질서로 재편되었다. 신자유주의 국제 경제 질서는 자유화,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 그리고 세계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신질서 속에서 석유 산업은 규제완화, 근거리 공급원 확보 그리고 국제 금융 자본의 역할 증가라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자유화(liberalization)는 규제완화와 시장 역할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석유산업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70년대 인플레이를 우려하여 정부가 국내 유가를 통제하였으나, 80년대 초반 레이건 행정부는 유가통제를 해제하였다. 즉, 값싼 해외 원유를 수입·정제한 후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중 상당부분을 부당 이득세(Windfall Profit Tax)라는 세금으로 거둬들임으로써 유가를 실질적으로 통제해왔다. 1986년 이 세금이 폐지되면서 가격 자유화가 시작되었지만 그 효과는 9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1996년부터 휘발유의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휘발유 등의 국내 소비 가격이 실질적으로 해제되었다. 이런 규제 완화에 의한 자유화는 국제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을 동조화(synchronization)시키는 효과를 갖고 오면서 국제 가격이 국내 수

급등 지역적 요인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90년대 들어 주요 석유 소비국가들이 지역 협력 혹은 지역 통합 움직임을 가속화하였다. 유럽의 유럽연합(EU), 북미에서의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 아시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회의(APEC)가 바로 이런 움직임이다. 지역 협력 움직임은 석유 공급원 재편과 석유 교역확대로 연결되었다. 즉 EU에는 자체 영역 내에 위치한 북해 유전과 기존의 북아프리카 지역외에 구소련 지역이 주요 공급원으로 추가되었고, NAFTA의 핵심국가인 미국도 캐나다·멕시코 외에 남미의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서부 아프리카를 주요 공급원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비OPEC국가의 생산이 증가하였고 석유의 국제적 교역이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현물 시장(spot market)의 역할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70년대에는 현물시장이 국제 석유 거래의 3-5%를 담당하였으나, 80년대 이후에는 25-35%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지역 통합에 의한 산유국-소비국 관계 강화는 오히려 유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갖고 왔다. 안정적인 석유 공급원이 필요한 소비국들은 국제 정치에서 소비국의 국가안보를 보장해주는 한편, 산유국들은 소비국에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 결과, 소비국들은 과거처럼 대규모의 석유재고를 보유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소비국들은 최적 수준 재고(just-in-time stock)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재고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실익을 보았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된 저유가로 산유국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산유국들은 공급조절을 통해 유가 상승을 도모하였다.

소비국 입장에서는 낮은 재고 수준으로 인해 산유국의 공급 조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었고 이로 인해 유가상승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결국, 산유국-소비국간의 이런 상호 의존 관계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소비국의 대응 능력 저하와 이에 따른 유가 불안을 갖고 오는 데 일조하였다.

셋째, 국제 석유시장은 90년대 들어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을 받고있다. 세계화의 요체는 자유로운 국가간 교역이다. 상품뿐만 아니라 자금도 국가간에 존재하는 장애를 받지 않고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금융자본의 역할 증대는 익히 알려져 있다. 석유의 경우, 세계화는 석유를 전략적 상품에서 하나의 경제적 상품, 특히 금융자본의 투자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변화는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90년대에 들어 그 영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1970년대 석유에 대한 OPEC의 영향력이 급증하면서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써 석유에 대한 선물 거래를 허용하였다. 즉, 석유 가격에 있어 소비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석유 가격이 시장에서 투명하게 결정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선물시장을 석유에 도입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높이면서 소비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선물거래가 기본적으로 금융 상품인 결과 90년대에는 석유에 대한 국제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급증하였다. 결국, 유가는 소비국이 의도한대로 그 결정과정에서 과거보다 높은 투명성을 확보하였을 지는 몰라도 유가 변동을 유발하는 요인은 확대되었다.

요컨대, 자유화·지역 통합 그리고 세계화를 요체로 하는 신자유주의 국제 경제 질서는 석유 산업의 규제완화, 국제 석유 거래의 확대 및 석유에 대한 금융자본의 영향력 강화를 불러왔다. 즉, 자유화와 지역 통합으로 석유의 국제 교역이 확대되

면서 현물 시장의 역할이 증가하였고, 이 결과 특정지역에서의 석유수급 및 정치적 사건이 즉시 석유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재고 수준의 급격한 감소로 공급차질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저하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유가가 미국 등의 증권 시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상은 국제 유가 분석에 상당한의미를 주고 있다.

### 3. 유가전망을 위하여

최근의 유가동향을 살펴보면 석유공급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급혼란에 못지않은 유가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다. 이런 조건하에서 유가예측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 즉, 유가는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이라는 메카니즘을 통해 과거보다 더욱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하겠지만,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과거 보다 더욱 증가하여 유가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즉 투명성(transparency)의 증가가 곧 단순성(simplicity)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복잡성(complexity)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 예측에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국제 석유 수급과 거시 경제적 및 국제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는 기본적인 분석(fundamental analysis)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석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믿어지는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도 고려해 볼 만하다. 결국 이런 체계적 방식에 의한 유가 연구가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 유가를 예측해지는데 유용할 것이다. ♣